

교회목표

진정한 예배
한국인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전교
이웃 사랑

주간총현

나의 힘이 되신 예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84: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골로새서 3: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U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2년,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복음의 일꾼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인류 역사의 끝이 어디인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때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그 명령을 따라 총현교회가 2002년도 일꾼들을 세웠다. 총현의 모든 일꾼들은 주께서 주신 직분임을 깨닫고, 복음에 빛난 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회	부서기/이형수		인사위원회				3지회 신영호 유영희 (3, 8, 9, 12)				
시기/노광현			인사위원장/당회장 위원/노광현, 김희철, 이병학, 최대환, 이 훈, 윤성철, 이형수				4지회 한영덕 조숙 (4, 5, 13, 16, 17)				
예배위원회										노회총대	
예배위원장/박영식			지도/정현민		기획위원회			노회총대/노광현, 이병학, 이 훈			
예배부장/이태식			상례부장/최기홍		기획위원장/이종석			지도/김동하			
안내부장/박덕양			헌금부장/황희만		기획실장/이형수						
위원/정대우, 최지훈, 정정길					위원/조선근, 이병학, 윤성철, 이하영, 이종실, 김환기			총현교회 유지재단			
								이사장/김성관			
								이사/노광현, 이병학, 차진숙, 김광남, 이하영			
								감사/엄필성, 송환창			
신앙위원회										재단법인 총현재단	
신앙위원장/이 훈			지도/이홍철		교구위원회			이사장/김성관			
신앙대			부지도		교구위원장/이병학			이사/노광현, 이 훈, 김영길, 김재명, 이하영, 박민진, 안종욱			
간사			권병철/조연숙		교구 교장 지도 부지도			감사/김희철, 오정현			
박운옥			김진숙/김자숙		1 오정현 정현민 윤인숙						
김현채			백운옥 박상대/김호순		2 진홍용 이홍성 여국근						
이종현			최희영 김신국/방소애		3 남수우 정혜성 김경자						
박원옥			한경숙 양기수/원길자		4 김구형 방준영 이옥주						
조 소 나			김정숙 /이영숙		5 이종석 서광진 신동자						
이계인			임효선 윤석민/김자숙		6 엄필성 나광영 홍순애						
에 본			구자희 홍원식/조혜순		7 최병환 정진호 안대순						
만도 트					8 정용식 이수근 김말자						
김윤숙			/이명희		9 김환기 이준경 김옥숙						
					10 이태희 여영기 김정현						

제1교육위원회	제2교육위원회	제3교육위원회	제4교육위원회	제5교육위원회	제6교육위원회	제7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이종실 지도/서광찬	지도/서광찬	지도/부지도 교과부장 부장 지도 부지도 영아부 신상수 한영준 유아부 김영은 김경자 유아부 박찬립 정경희 유년부 장정형 이정철 초등부 장정길 김옥식 중등부 노영환 이성욱 중등 1년 박철근 여국근 중등 2년 고세호 김경겸 중등 3년 이시호 서광진	지도/부지도 교과부장 부장 지도 부지도 영아부 신상수 한영준 유아부 김영은 김경자 유아부 박찬립 정경희 유년부 장정형 이정철 초등부 장정길 김옥식 중등부 노영환 이성욱 중등 1년 박철근 여국근 중등 2년 고세호 김경겸 중등 3년 이시호 서광진	지도/부지도 교과부장 부장 지도 부지도 영아부 신상수 한영준 유아부 김영은 김경자 유아부 박찬립 정경희 유년부 장정형 이정철 초등부 장정길 김옥식 중등부 노영환 이성욱 중등 1년 박철근 여국근 중등 2년 고세호 김경겸 중등 3년 이시호 서광진	지도/부지도 교과부장 부장 지도 부지도 영아부 신상수 한영준 유아부 김영은 김경자 유아부 박찬립 정경희 유년부 장정형 이정철 초등부 장정길 김옥식 중등부 노영환 이성욱 중등 1년 박철근 여국근 중등 2년 고세호 김경겸 중등 3년 이시호 서광진	지도/부지도 교과부장 부장 지도 부지도 영아부 신상수 한영준 유아부 김영은 김경자 유아부 박찬립 정경희 유년부 장정형 이정철 초등부 장정길 김옥식 중등부 노영환 이성욱 중등 1년 박철근 여국근 중등 2년 고세호 김경겸 중등 3년 이시호 서광진

제1교육위원회	제2교육위원회	제3교육위원회	제4교육위원회	제5교육위원회	제6교육위원회	제7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이종실 지도/서광찬	지도/부지도 교과부장 부장 지도 부지도 영아부 신상수 한영준 유아부 김영은 김경자 유아부 박찬립 정경희 유년부 장정형 이정철 초등부 장정길 김옥식 중등부 노영환 이성욱 중등 1년 박철근 여국근 중등 2년 고세호 김경겸 중등 3년 이시호 서광진	지도/부지도 교과부장 부장 지도 부지도 영아부 신상수 한영준 유아부 김영은 김경자 유아부 박찬립 정경희 유년부 장정형 이정철 초등부 장정길 김옥식 중등부 노영환 이성욱 중등 1년 박철근 여국근 중등 2년 고세호 김경겸 중등 3년 이시호 서광진	지도/부지도 교과부장 부장 지도 부지도 영아부 신상수 한영준 유아부 김영은 김경자 유아부 박찬립 정경희 유년부 장정형 이정철 초등부 장정길 김옥식 중등부 노영환 이성욱 중등 1년 박철근 여국근 중등 2년 고세호 김경겸 중등 3년 이시호 서광진	지도/부지도 교과부장 부장 지도 부지도 영아부 신상수 한영준 유아부 김영은 김경자 유아부 박찬립 정경희 유년부 장정형 이정철 초등부 장정길 김옥식 중등부 노영환 이성욱 중등 1년 박철근 여국근 중등 2년 고세호 김경겸 중등 3년 이시호 서광진	지도/부지도 교과부장 부장 지도 부지도 영아부 신상수 한영준 유아부 김영은 김경자 유아부 박찬립 정경희 유년부 장정형 이정철 초등부 장정길 김옥식 중등부 노영환 이성욱 중등 1년 박철근 여국근 중등 2년 고세호 김경겸 중등 3년 이시호 서광진	지도/부지도 교과부장 부장 지도 부지도 영아부 신상수 한영준 유아부 김영은 김경자 유아부 박찬립 정경희 유년부 장정형 이정철 초등부 장정길 김옥식 중등부 노영환 이성욱 중등 1년 박철근 여국근 중등 2년 고세호 김경겸 중등 3년 이시호 서광진

전도위원회	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재직회	제직회	제직회	제직회
전도위원장/이하영 전도부장/이하영 동아전도부장/원운철 위원/손철, 정홍식, 최윤덕, 노영환, 박철국	지도/여국근 전도부장/정현필 전도대장/한승철	지도/노경록 차량부장/김영길 위원/문홍국, 김단용, 안동현, 정대우, 신상수, 장정형	지도/부지도 원장/당회장 부원장/이종석	지도/부지도 원장/당회장 부원장/이종석	지도/부지도 원장/당회장 부원장/이종석	지도/부지도 원장/당회장 부원장/이종석

"거부" (렘 5:3)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자들이었다. 마음이 멀어진 증거가 무엇인가? 여호와와의 교섭을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그 증거였다(렘 3:2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척한 마음을 가진 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은 오래 기다리시고 마침내 남은 자들을 통해 서로 다른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굳센 의지였다(렘 4:1).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임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마음의 악, 즉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일이다(렘 4:14). 도대체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단 말인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하고, 지극히 없으며, 미련하였기 때문이었다(렘 4:22).

정직한 미련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 속에 내재된 죄는 숨기면서 성공을 자랑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의가 더 두려워 못마땅하며 타인의 자리에 누워버리는 일이다. 현실과 처지는 중요하나, 미래와 원근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멸망의 자리에 부리를 내리려는 일이다. 어디 그뿐이랴? 하나님의 은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적을 추구했던 환교회가 타를 두고, 마침내 하나님 없이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살아 가려는 불신의 싹을 피우는 것이 미련한 아닌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의 성(성)!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져서 열적인 미련한에 빠졌고, 점점 멸망을 향해 치닫는 성(성)! 자비로우신 선하신 하나님께의 간절한 초종을 거부하는 예루살렘! 훗날 몸소 찾아오실 것을 기다림까지 거부하게 될 멸망의 그들이 드리워진 성(성),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에게서 하소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심판의 말(렘 5:1)! 그러므로 하소이는 그들의 수많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고, 그들의 마음에 거짓과 위선과 외식이 가득한 것을 지적하셨다(렘 5:22). 진실로 그들의 마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아픈 줄을 몰랐고, 멸망에 이르렀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아예 걸린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렘 5:3).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보다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는가? 그렇다면 회개는 단순하나 실천하지 못할 때는 매우 복잡해진다. 것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주께 돌리려라, 그리고 믿음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주를 기대하라.

What then? (Romans 3:9)

"What then? Are we better than they?"

Not at all; for we have already charged that both Jews and Greeks are all under sin."

In today's Bible verse Paul confirms his charge that "both Jews and Gentiles are all under sin." The universality of sin condemns all people, for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 (v. 10). All humans are sinful creatures. Praise God that His Word gives us a wonderful promise, the glorious salvation from sin, if we fear Him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But what if people reject the Gospel? What if they rebel against Christ? What then?

The Bible is very clear, very specific, about the tremendous punishment and judgment that comes to the unrighteous. It is also very clear and specific about the great rewards and blessings that come to those who are imputed with righteousness through their faith in Jesus Christ. The whole Bible concerns redemption. It tells us of God's love and our sinfulness. Indeed, the purpose of the Bible is for our salvation. It plainly teaches that if you listen to God's Word you will have eternal life, but if you don't listen you will have eternal punishment.

The righteousness of God demands that sin, all sin, be punished.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in the Garden of Eden. God told Adam and Eve the future of what would happen if they ate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see Gn. 2). God mentioned death before sin even entered the world. The Garden of Eden was a place filled with wonderful promise and terrible judgment. Who can say, "Hey God you are not fair?"

Throughout the Scriptures we read of the terrible judgment that has befallen humanity. For instance, the flood of Noah, Sodom and Gomorrah, the Egyptians at the closing of the Red Sea, the story of Achan, Ananias and Sapphira, and the destruction of the Jerusalem Temple all recount eternal punishment. When we read the Bible we can see that there is eternal punishment on this earth.

But that's not all, more awful things occur after death if we are judge with the terrible punishment. Remember the story of the rich man and Lazarus (see Lk. 16:19-31). Lazarus was carried away by angels to paradise while the unsaved rich man was sent to Hades. The reality and torment of hell, the conscious existence after death, and the knowledge that there is no second chance after death is brought to light. Hades is the home of the unsaved dead

between death and judgment at the great white throne, "And the sea gave up the dead which were in it, and death and Hades gave up the dead which were in them; and they were judged, every one of them according to their deeds" (Rv. 20:13). Everyone in this judgment is cast into the lake of fire, "And if anyone's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he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Rv. 20:15). In otherwords, after death there is a more terrible punishment. It is an eternal judgment.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whatever you do receives judgment, "Behold, I am coming quickly, and My reward is with Me to render to every ma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Rv. 22:12). Are you complaining or angry? However you live your life, you are going to be judged. God is a righteous judge, "to those who by perseverance in doing good seek for glory and honor and immortality, eternal life; but to those who are selfishly ambitious and do not obey the truth, but obey unrighteousness, wrath and indignation" (Rom. 2:6-8). If you follow this world's lifestyle, you will endure God's wrath and anger. For God's wrath results when grace is rejected. Whatever it is you do, you are going to get it. Whatever you get is for eternity. "If your hand or your foot causes you to stumble, cut it off and throw it from you;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crippled or lame, than to have two hands or two feet and be cast into the eternal fire" (Mt. 18:8). This is strong language, used to emphasize how sin is so dangerous, because it leads to eternal condemnation, that it would be better to lose hands or feet temporarily than to lose life eternally.

Are you scared of eternal fire? The Word of God promises eternal fire, yet you still complain because you don't understand eternal fire. "These will go away into eternal punishment, but the righteous into eternal life" (Mt. 25:46). Amen! Eternal life or eternal punishment. Whatever happens is eternal. "These will pay the penalty of eternal destruction, away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glory of His power" (2 Thess. 1:9). The lake of fire is real, a never ceasing entity of eternal punishment.

What then? What are you going to say to God? Can you say, "God, You are not fair, You are not righteous? Is that what you are going to

say? Look at all the angels in heaven, the prophets, and the disciples, they all praise the Lord. They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kindness, mercy, and grace in all eternity. When you look at the Psalms, His grace is immeasurable. David sings, "I will proclaim His salvation all day long." Is God's judgment unfair? No such thing. Is eating only manna too difficult a task? Can you say that the pillar of cloud and Moses' staff are not a clear picture? Can you say that? God gives you warnings through your friends, parents, pastor, Bible, and Holy Spirit. Can you say, "Give me more time?"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reveale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those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 (Rom. 3:22). Opportunity abounds for Jew and Gentile, Jesus says, "All things have been handed over to Me by My Father; and no one knows the Son except the Father; nor does anyone know the Father except Son, and anyone to whom the Son wills to reveal Him.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7&28). Do you think He is not fair? We are called to follow Jesus, which requires suffering (1 Pet. 2:21-24). He wants to give you the crown of life. The Bible tells u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Do you think God's not fair? What then? All you smart, proud, and selfish people, how terrible are you? Your heart is like stone.

Listen my brothers and sisters, "Therefore, holy brethren, partakers of a heavenly calling, consider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our confession" (Heb. 3:1). Yes, consider Jesus, Amen! What then my friend? Please wake up and don't complain to God. Life is too short. God is calling you, offering you a wonderful invitation. Please accept it. Look at the cross and see how much, how very much. He has given you grace and mercy. Look at the wonderful opportunity that awaits your decision. See the wonderful love that awaits your embrace. Acceptance without faith cannot gain eternal life. With faith, accept that Jesus Christ is your Lord, King, and Savior. Then, and only then, will you be made righteous in God's eyes, your sins wiped away forever, and blessed with eternal life. 🙏



김성권 목사

모두가 죄인이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그의 의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죄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유적정결을 내리는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확고하게 선언합니다(10절).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연약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연약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아니면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는 끔찍한 형벌과 심판에 대해 아주 무서워하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전가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상급과 복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구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악에 대해 말합니다. 참으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며 거절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의(義)에는 형벌이 따른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전 동산에서 행적이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만일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가장 발이질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창 2장 참조).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죽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전동산은 놀라운 연약과 두려운 심판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저런, 도대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군?”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영원한 형벌은 영원한 감옥으로 인도한다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일어난 끔찍한 심판을 읽게 됩니다. 그 예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홍해에 몰살당한 애굽 군대, 불의한 제물을 취한 아간, 헌금을 속여서 죽음을 맞이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등,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자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상에 영원한 형벌이 분명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죽을 후에 생기가 될 일인데, 우리도 끔찍한 형벌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눅 16:19~31).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지옥으로 보내어지는 동안, 나사로도 천사에 의해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자가 처한 지옥은 실제로 천국과 극심한 고통이 있으며, 죽을 후에도 의식이 존재하고 지식이 사용되는 곳으로서, 죽을 후에는 빚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다

그러면 어떠하뇨?

(롬 3:9)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시는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음부(Hades)는 죽은 후에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 ‘백보좌’(White throne)에서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고 감히 되는 영원한 감옥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계 20:13). 이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계 20:15). 달리 말하자면, 지옥은 죽을 후에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세 하신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심판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배아 속히 오리니 내가를 상이 내게 있기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 여러분은 불평하거나 분노하십니까? 재아무리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시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롬 2:6~8).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생활방식을 따른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온해를 거부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박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마 18:8). 이것은 매우 강하게 표현된 언어인데, 죄가 매우 위험스럽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을 영원한 타락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차라리 한쪽 손이나 발을 잘라 버리는 것이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다

여러분은 지옥의 영원한 불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의 영원한 불을 예고합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평하는 것은 영원한 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 25:46). 그렇습니다! 영생이냐 영원한 형벌, 둘 중에서 하나를 받게 되며, 두 가지는 모두 것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열과로 그의 혀의 영향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리니”(산후 1:9). 또한 불완전한 심판으로 존재하는 곳이며, 실제로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입니까?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신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들은 하나님의 운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게 될 때,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의 구원을 선포하리이다”. 이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리시는 만사를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과제입니까? 구름기둥과 모세의 지팡이가 보다 더 신명하게 묘사되지 않았다고 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와 부모와 목회자와 성경,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과 통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데도, 과연 ‘나에게 결정할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의심하지 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기회는 동등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7~28). 여러분은 그분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으며 예수를 따르는 부름을 받았습니까(마 22:1~24).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아직도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눈치 빠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끔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둘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중한 형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사도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성령을 깊이 생각하라”(히 3:1). 그렇습니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며 세월을 보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은 초점을 부르고, 놀라운 은혜를 제공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의 풍성함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는 온혜와 자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회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을 안아주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없이 받아들이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왕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이십시오. 단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잊게 될 것이며,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LMTC(평신도선교사훈련) 수련회를 마치며

이 해 형
(LMTC 14기생)



처음 참여하는 수련회이어서인지 부른 가슴을 안고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수련회에 임하였습니다. 도착예배 때부터 성령님께서 저를 물론이고 모든 후보생들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더 달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듯한 갈급함을 허락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조원간의 교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은혜도 컸지만 조원간의 교제와 나눔은 수련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신앙간증은 물론 살면서 어려웠던 일,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승리의 삶으로 영위하게 된 과정을 나누자 기쁨이 베풀어졌습니다.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주제와 초점을 변화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와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의 의미가 없듯이 후보생의 삶의 목표와 선교의 시작이자 마지막은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모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 하였으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이 나의 진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가장 복음화와 복한지의 탐복자를 위한 마음이 불타올랐고 LMTC의 선교지들(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란) 위해 중보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13초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창조·예경·구원·십자가·부활·제명, 이 복음의 진수를 만방에 선포하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어 함을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의 과제를 작성의 강의를 들으면서 젊은이로서 학업의 도전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 LMTC 훈련 과정을 출현교회에 설립하게 하신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말없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 또한 우리 모두가 광장에서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 일하고 개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모든 선교후보생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계관 ③

인간과 영원성

세상에서 인간만이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공허(空虛)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다는 말이다.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지 않은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 '영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관념을 모두 초월하는 개념이다.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는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어떤 개념에 대해 추상(抽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 개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의 존재에 대해 긍정한다는 말이다. '영원'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개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을 안다. 다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느냐 외면하느냐의 차이 있을 뿐이다.

'영원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제한성'이다. '제한성'의 대표적인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낸다. 그렇기에 모든 피조물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제한성에 절망하는 것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영원성을 명시하는 것은 아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은 모든 것을 유물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질은 영원한 것과 어울릴 수 없다. 시간을 생각해 보자. 시간은 세상의 모든 것이 죽고 사라지는 관계가 없다. 그저 계속될 뿐이다(물론 인간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영원한 것을 믿지 못한다면 시간의 흐름도 믿지 못한다.

'영원한 사랑'을 원하고 '영원한 우정'을 말한다는 것은 사랑이나 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본능적 그리움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길은 기를 쓰고 외면한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다음 주에 계속)

(인철의 묵사)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을 위해 역(逆)으로 기도하자!

강기 업(현력 선교사)

지금 무슬림들은 미국 테러 사건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라마단 기도회 이들은 더욱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멀리 눈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를 분리해 하는 악한 영들로 인해 교회가 하나되지 못한 여러 모습들을 본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이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 6:12,13)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이다. 허망한 것을 위해,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위해 하나가 되는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핍박을 당할 지라도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회교권 내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무슬림은 전능하고 지존하신 자신들만의 유일신의 존재를 믿는다. 또한 무슬림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과 비슷하게 하나님은 창조적이고 영원하다고 믿는다. 무슬림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분이요, 개인적인 구원자로 그분을 알고 있으나 관계는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히 8:8,9).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도록 기도하자.

무슬림은 천사와 진(imm)이라고 불리는 악령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악령은 큰 두려움의 대상이고 범죄와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곤고함의 표현이고 이러한 곤고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위 안에서 채워질 수 있다. 많은 무슬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두려움에 대하여 기도하자.(요일 4:18)

"계집종에서는 유채를 따라 갔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갈 4:23). 이슬람들은 종이나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완전히 순복하는 데도 다른 교세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적인 관점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녀로 믿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무슬림들이 알도록 기도하자.(마 18:3)

이슬람은 낙원에 가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한다고 가르친다(코란2:8-9). 이러한 믿음의 결과 많은 무슬림들이 죄 사람의 근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나 용서의 필요에 대해 모르고 있다. 그들이 죄의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도록 또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초자연적인 만능의 결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많은 무슬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준 진리의 눈을 뜨게 하고, 죄를 바로 인정하게 하시며 죄 사함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만드실 수 있다.(요 16:8)

13억 무슬림(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성지인 메카를 바라보며 헛된 믿음을 위해 굶주리며 기도할 때,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오 모슬림들의 구원을 위해 역(逆)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슬람 세계에 대한 영적전쟁 신포와 함께 이슬람 국가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자. 이 역(逆) 라마단 기도운동은 올레로 10회째를 맞았다. 이번 라마단 기간 동안에도 전세계 30개국 2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총현의 성도들도 이 한 달 동안 특별히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매주 기도제목을 게재할 것이다.

제1일 11월 17일 (토)

1. 하나님께 공헌한 자를 위한 기도

1. 신적·영적으로 공헌한 수백명의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자(요 4:7-14)
2. 기쁜 마음으로 부속으로 신적·영적 도움을 주고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자(사 58:9-10)
3. 영적부흥에 사명하고 있는 무슬림 사도들, 특히 아프리카 북쪽과 사하라 사막 남부의 이슬람을 위해 기도하자(골 4:2)
4. 많은 무슬림 국가들에 영혼을 주고 있는 정치적 위기에 대해 진정한 해결이 있도록 기도하자(렐 17:5-8)

*'마의 11월과 기도제목은 예수수전도의 무슬림들 위한 30일 기도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중됨, 그리고 섬김.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대학부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일꾼의 마음과 앞으로 한 해 동안 섬길 일꾼의 감호를 담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 병 희 (대학부 신임 부회장)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부회장으로 대학부사를 섬기겠다고 준비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은 나에게 커다란 지표가 되고 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처음 후보로 공천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힘들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지금 나의 이 상태 그대로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부라는 곳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공동체이다. 대학부를 통해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대학부 안에서 받았던 많은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다른 대학부의 지체들이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중보하기를 원한다. 대학부에 전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을 위해, 찬양하는 입술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 또한 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내게 있어 더 다듬어지고 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나 자신을 바꾸고 싶다. 단순히 나 자신을 바꾸고픈 욕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기가 가장 좋은 상태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많은 기대가 된다. 짧은 때에 나의 정열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

지금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살아가는 날 동안 간직하며 나의 평생 동안 주님께 쓰임 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한다.

선물, 그리고 감사함

김 연 신 (대학부 전 부회장)

나에게 있어서 2001년은 선물같은 한 해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처음에 내가 받고 싶었던 선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감사’란 단어로 정리하고 싶다.

부회장으로 한 해 동안 섬기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해주셨다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서 알 것 같다. 우리는 대학부에서 어떤 자리에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세우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더 편하고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세우셨다.

처음에 부회장으로 세워졌을 때 참 많이 울고 한 해 동안 섬기면서도 눈물과 참 많이 흘렸다. 원래 눈물이 많긴 하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는 것을 배운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뿌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셨으리라 믿는다.

그 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한받지 않고도 당신의 뜻을 끝내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다.

나에게 1학년 때 대학부라는 공동체에 슬며시 발을 들여놓았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2학년 때는 그 대학부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채움 받고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3학년 때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이 허락해주시던 대학부라는 귀한 공동체를 바라보고 함께 하였던 시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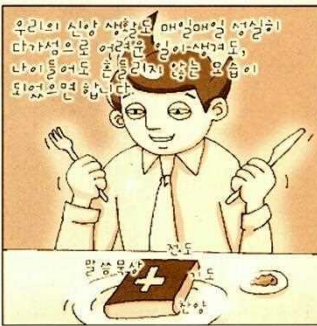
요즘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올 한 해 참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의 힘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도 내년에 섬기게 될 34대 일원들을 위해 중보하는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주님영광찬양을 위하여

No.06

{은혜소녀, 주의 길을 따라 가다}

글: 장민



은혜소녀는 나의 길을 고백을 합니다.

참된 마음을 주소서

단 진 성 (대학부 3학년, 전 학원장)

작년 이맘 때 나는 대학부 3학년장이라는, 작으면서도 큰 공동체의 리더 자리에서 섬기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난생 처음 맡은 리더의 자리여서인지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의욕이 넘쳤다.

그러나 예전에 생각하던 리더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시간과精力을 들인 만큼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이는 별로 없었다. 많은 모임 가운데서도 설마 더 많았다. 무엇보다도 별 때나 독감은 공동체에 사랑을 쏟아야 하는데 대해서 점점 회의감마저 들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 동기의 학원장이었던 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대가로 받으신 건 전직자의 고통이었다.

그러시면서도 끝까지 우리 사랑하셨다.”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으면서 바라던 것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지치다니! 주님 뵈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으면서 그것이 말뿐인 것이었구나! 공동체 안에서 날 알아 주고 인정해 주길 원하는 공명심이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받을 필요가 없는 피로움과 상처를 준 것이었다.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진정한 종로로서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했다. 종로되기를 바라는 자가 섬기는 것 이외에 무엇을 바랬던 말인가? 바라던 것이 안 왔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걸 안 순간에야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내 삶 자체가 그분의 종로로서 드러지는 것임을 알기에 이제 난 리더가 아니어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다.

꽃에서 새로운 시작이 보인다. 그 시작 속에서, 특히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리더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리더는 위에 서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종’입니다.

마음의 뿌리부터 온전히 영혼들을 섬기기만 할 줄 아는 참된 종의 마음을 모든 리더들에게 허락하시어, 인간에게 인정받으라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벤자민 위필드

하나님의 신학자

1887년 프린스턴의 교수로 취임할 때 위필드는 프린스턴의 전통 속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자신의 스승 하치의 뒤를 잇겠다고 선언하였다. “내 안에 찰스 하치의 능력은 없어도 그분의 신학은 있습니다. 나는 내 재능을 다하여 이 신학을 알기로 만날 학생들에게 강의할 것입니다. 아, 그의 열매와 그의 겉옷이 내 어깨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행히 그에게 주어진 복음은 내 입술에도 있습니다.”

하치는 신앙을 찾기 위해서 신학을 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믿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여야 했다. 물론 그 내용은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이다. 그러기에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성령이 일해서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깨달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논리에 어긋남이 없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논리 이상의 신앙을 주어 하나님과 연합시켜준다. 하치는 이런 식으로 신학을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위필드는 그의 스승 하치의 신학하는 방법을 그대로 준수하였다.

위필드가 보기에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체계화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때 인간의 지성은 그것을 깨닫고 설명해준다. 이때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지성 사이에는 중개역할을 하는 매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학이 하는 일이다. 이때 신학이 근거로 삼는 대상은 여러 사람의 깨달음이나 경험처럼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불변하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유일한 신학의 대상이었다.

성경에는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그리고 하늘의 계사장 되심에서 절정으로 나타난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어 있다.

신학을 연구하는 이는 이러한 진리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는 단순히 사실이나 개념, 주장 또는 체계를 정리하는 이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이이다. 신학자의 소명은 “영혼의 구주와 함께 본 것을 나누며 굳게 소중함을 발견하여 그분은 굳게 붙들며 성령의 감격스런 감동으로 깨닫고 굳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와 자신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해야 한다.

위필드는 34년 동안의 여생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보냈다. 그가 프린스턴에서 쓴 글들은 산더미 같다. 그 글에서 풍기는 인상은 언제나 깊은 신앙이다. 완전한 권위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의존한다. 매사에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그의 글에는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한량 없음이 표현되어 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증거하였다. 그의 글은 하치의 것들과 함께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뼈대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지대하다.

(김기흥의 ‘천국의 기둥’에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민정’ 재단을 소개합니다 (사진오른쪽)

모든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미혼 직장인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한 일이 있어 교회와 멀어졌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요즘은 힘든 일로 괴로웠는데 교회에 나오니 웬지 모를 감동 이 밀려 왔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여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범진’ 재단을 소개합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였고 3남 1녀를 두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 최근 81세가 되어서야 같은 아파르데 사시는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면만 마음이 편안해져서 더 기쁘고, 즐겁게 믿음생활을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숙경 (새가족부 통신원)

참고오묘한그말씀/11월 2일 금요일

예수님과 바울의 연결

조기 교회 당시 사도들은 주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중심으로 주님을 전했다. 예수께서도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받아들이는 자를 굳이 구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시와 중심 세력들에게 복음을 전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유난히 많았다.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와 바울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로 부터가 아니라 바울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것은 그저 이단의 한 분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으니 바울은 믿음이나 사랑, 소망 따위를 이야기했으므로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바울은 예수께서 주장한 ‘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런가? 바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가?

절대 그렇지 않다. 바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다. 다른 사도들이나 전도자들도 심지어 세례요한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를 잘못 생각하거나 뒤늦게 깨달았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께서 이미 가장 중요한 ‘의’로 가르쳤던 바울이다. 이제 단언하는 바울의 신앙을 총망라한 것만으로도 바울의 믿음을 총정리한 것이다. 예수는 분명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밀어엎어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요”(마 17:20). 바울 또한 “만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롬 1:16)이라고 말한다.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이 밝힌 믿음은 분명 예수로부터 나온 것인데 왜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이것 역시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눅 8:10).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 소망, 사랑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니 거기서부터 떠나 오라 하라 하시니 그가 이르러서 예수께 이르러서 가로되 내가 너를 따라가리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믿고” 너의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보화가 있을 “소망”을 품으라.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는 나를 좇아 십자가를 지라. 바울은 얼마나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했는가? 예수의 이 말씀과 바울이 “우리가 성경으로 믿음을 좇아 외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도 주의 것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갈 5:5-6)라는 믿음은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가? 어찌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의 것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었는가?

다른 제자들도 바울처럼 많은 곳에서 바치는 값이 없었지만 분명 같은 믿음을 기록하고 있다. 바드로 전서 3장에서든 믿음, 소망, 사랑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 선행하고 사랑을 격려하며”

바울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을 내렸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다.

마음주일 전승

306장 감사하는 성도여

올해의 감사전 찬송 306장은 영국 런던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신학자이며 시인, 음악가이기도 한 헨리 앨프리드(Henry Alford, 1810~1871) 목사의 주수 찬송가로 세심 주수를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영혼 주를 노래하였다. 47년간 생 조지 교회에서 반주와 찬송가로 수반하였던 조지 엘비(George Job Elvey, 1816~1893)가 작곡하였다. 원문을 해설

1절 “오라, 감사하는 백성들아, 주신 찬미 드물며, 거룩 목을 불기 전에 모든 것 무사히 거둬들여 내. 참조주 하나님 우리의 소고 공경하시고요 예배하셨도. 오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수 찬미 높이 부르자.”

2절 “모든 세상 주의 찬양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별이라, 밀과 가리지가 같이 자라고 있으니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자라고 하니. 처음에는 양이 나니 다음에는 양이 나니 오며 완전한 곡식이 나오리라. 주수의 주여, 축산한 양식이 되고 주수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3절 “미 13:24~30, 36~43의 내용이 바탕이 되었다. “우리 주 하나님 오실 것이요 주수하여 본 땅으로 가지가리니 그 날엔 주의 발에 모든 죄악의 뿌리 제거되리라. 미칠 주의 천사들에게 명하시라 가리지는 불에 던지실 것이나 풍성한 이삭들은 주의 곳간에 영원히 간직하시라.”

4절 “그러함으로 주여, 주수 찬미로 속히 오소서, 주의 백성들 거둬들여서 슬픔과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영원히 정결케 되고 주의 함께 살게 하소서, 주의 천사 대동하고 오소서, 영광스런 주수 찬미 드높이소서, 아멘.”

(찬양위원회)

아빠들만의 모임

김 홍 기 (영아부 교사)



요즘 많은 아빠들이 영아부 예배에 동참하고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 영아부 모두는 어떻게 하면 아빠들의 참여를 많이 하게 하여 가정에서도 찬양과 기도, 말씀이 연장될 수 있게 할까 해서 '아빠들만의 모임'을 시작했다. 지난 달 28일 1부 2부에 모두 34명의 아빠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였다. 재직 인원 에 비해 적은 인원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에 대한 신중한 대화가 오고 갔다.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닌 인성교육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등 많은 이야기와 나왔지만, 뒤편이니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 주고, 아이가 자라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성경을 읽게 하여 참 지혜로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감했다. 또한 아기를 통해 가족이 가장 침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하는 아기의 입을 통해서도 가족이 은혜받고 있다고 했다.

교회학교에서 유익하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려는 곳이 영아부라며 평일에 아기와 함께 하지 못하기에 이곳 영아부에서 열심히 배우고 싶다는 아빠들의 말에, 교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아부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지수 아빠의 이야기

기도하는 개구쟁이 '지수'



"하나님 아버지! 올 아빠 빨리 낮게 해주세 요, 아멘" 내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와 기도와 주면서 "아빠! 다 나아왔어?" 하고 묻는 우리 지수. "아니, 그래도 아프데가"라고 말하면 "지수"가 기도했으니깐 이젠 안 아플 꺼야, 아빠!"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는 우리 아들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지수에겐 있구나' 하는 걸 느낀다. 나는 한번도 식사기도를 해 보지 않았지만 식사시간에 두 손을 꼭 쥐고 눈을 꼭 감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 고....."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지수 때문에 요즘은 식사할 때마다 지수의 기도를 들으면 눈을 감고 "아멘"을 크게 외친다. 나도 이제는 아플 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식사 때는 아멘을 마음 속으로 외친다. 지수로 인해 변화된 내 모습 중의 한 단편이다.

그동안 나는 우리 부부가 출현교회에서 결혼했다는 이유와 부모님을 뵈기 위해서 사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교회에 나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 가지 이유가 더 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품에 안겨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영아부를 거쳐 지금은 유아부에 다니는, 동요나 유행가보다 어린이 찬송가를 더 즐겨 부르는 지수 때문이다. '아!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경외심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이제는 나도 기도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

창립의 열

아모스(Amos) 2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아모스를 읽으실 때에는 먼저 그가 농경에 관한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다메섹은 적들을 타락하는 '타락'로 표현하고(1:3), 이스라엘의 죄악은 곡물을 가득 실은 '수레'에 팔려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2:13). 또한 시마리아의 멸망에 대해서는 '자자한데 잡아먹히는 양'으로 묘사하는가 하면(3:12), '갈고리'로 끌어간다고 묘사하기도 합니다(4:2). 그밖에도 '죽' '추수' '종재와 잡무' '동산과 포도원' 등 전란생활에 대한 소재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어렵겠지만 농경생활을 상상하시면서 아모스를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가 7장부터 9장까지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환상에 대한 환상(7:1-3), 불에 대한 환상(7:4-6), 다림줄에 대한 환상(7:7-17), 그리고 여름 실과 한 황주리에 대한 환상(8:1-2)과 제단 간에 서신 주님에 대한 환상(9:1-10) 등이 그것인데, 그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예후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가 결국은 그들의 생활에 불의와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예배를 드리지만 결코 영적이거나 신성한 예배가 아닌 쾌락적인 예배로 드러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만연하고 당면하지는 않았지만 아모스의 설교가 오히려 사회적 단합을 깨뜨리는 문제로 제기되기까지 한다는 것을 잘 관찰해 읽으시기 바랍니다(7:10). 특별히 그가 죄에 대해 지적할 때, '너나 가지 죄'라는 특이한 표현을 눈여겨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1:3, 6, 9, 11, 13, 21, 4, 6). 이것은 아모스가 여덟 나라들의 죄를 지적할 때 늘 사용했던 용어입니다(1장부터 6장까지). 그런데 그 수를 합하면 일곱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가 임할 만큼 죄악의 관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읽으실 때에는 그가 어떠한 대상들을 향해서 죄를 고발하고 경고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당시 사회의 상류층 여성들을 빚어 '바산의 양수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4:1-3). 그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죄를 고발하고 예언을 하였는데, 그들을 향해 각각 어떠한 죄를 지적하는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왕에 대한 것이라면 'K' 라로 표시하시고, 귀족들을 향한 전보는 'K', 그리고 통상적인 백성들에 대한 경고라면 'J', 사치로운 여성들에 대한 경고라면 'W',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는 'B' 라로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더욱 더 아모스의 경고가 확실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모스의 시대에 대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열왕기하 14:1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참된 공의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공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부패한 인간의 마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쯤, 인간의 도덕, 양심, 의지...! 그러나 천국의 공의가 인류의 역사에 감을 내고, 오늘도 거세게 흐르고 있음을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패로 가득한 세상에 나타난 창조자의 공의! 그 공의의 용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고, 그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며, 양심을 일깨우고 천국의 의를 입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모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되고 완전한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김동하 목사-순환국 지도)

Catechism

8.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1) 행위언약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아담과 그 후손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들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었고 따라서 행위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음 1.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어졌던 행위언약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명령입니다(창 2:16-17).

물음 2. 행위언약의 대표적 언약은 무엇이었나요?

행위언약 중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물음 3.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롬 3:20).

물음 4.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율법의 역할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며, 또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동학선생(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롬 3:20, 갈 3:24).

(2) 은혜언약

구약의 시대가 율법시대라고 한다면 신약의 시대는 복음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범죄함으로써 멸망의 행위언약으로 생명이 멸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와 두 번째 언약인 '은혜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은혜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로 인해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되는 언약입니다.

물음 1. 새 언약은 무엇으로 세워진 언약이었나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눅 22:20).

물음 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첫 언약, 즉 행위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마 9:15).

물음 3. 어떤 믿음이 유대인이든 모두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주 예수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행 13:31).

(오윤진 전도사-고들부 부지도)

